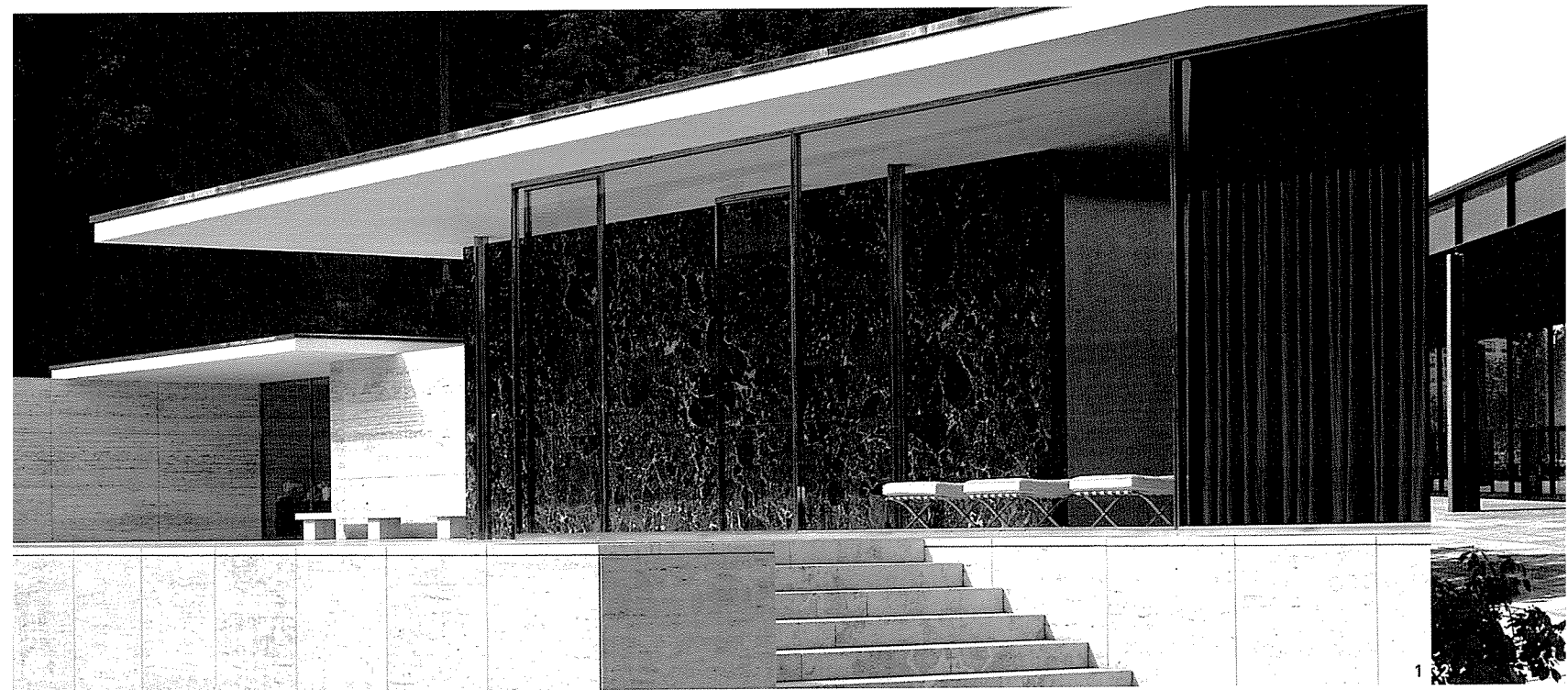


전통을 거부한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

이전과 전혀 다른 창조

20세기 건축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요즘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리로 만든 외벽을 처음 활용해 투명성과 반사 효과를 제시한 그의 건축 세계를 살펴본다.

에디터 백지현 번역 우영선 자료 제공 마로니에북스(www.maronieboo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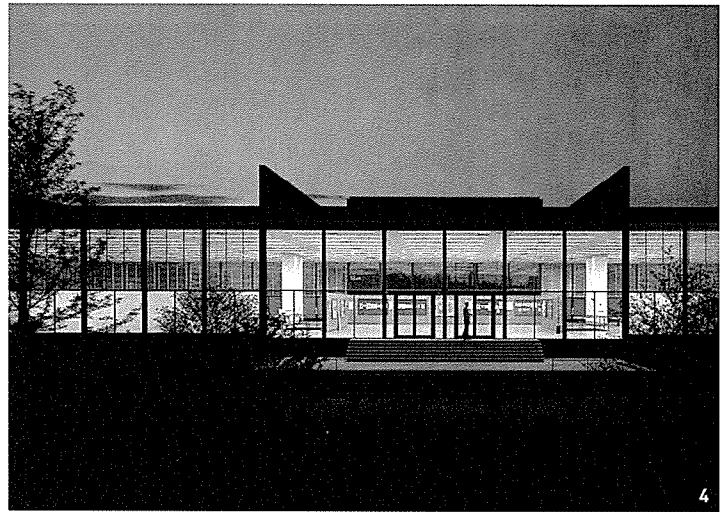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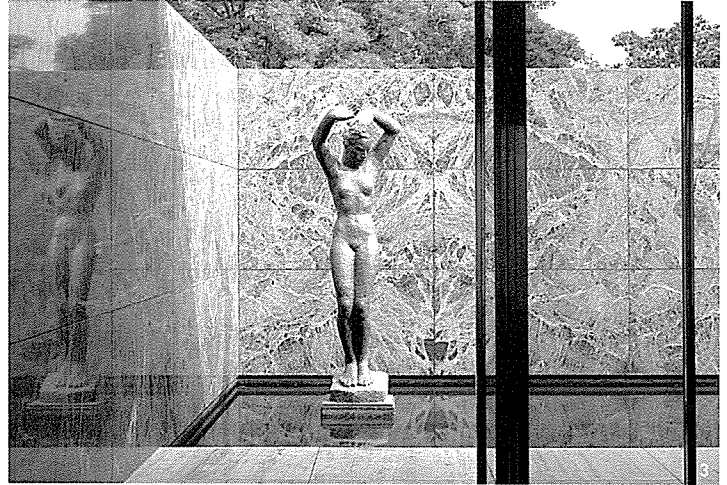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와 함께 20세기 건축의 선구자로 꼽히는 미스 반 데어 로에는 1920년대에 지속적으로 돋보이는 건축 활동을 폈다. 자신의 합리주의 원리와 미학적 기준들을 고집하면서도 최상의 질서에 도달한 그의 주목할 만한 작품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삶과 작품

루드비히 미스(Ludwig Mies)는 1886년에 독일 아헨(Aachen)에서 태어났다(반 데어 로에는 어머니의 성으로 1922년부터 자신의 성으로 삼았다). 그의 뛰어난 수공예 솜씨와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고향의 유명한 수공예 품목이었던 스투코(Stucco, 벽돌이나 목조 건축물 벽면에 바르는 문양) 장식을 디자인하던 아버지의 가르침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건축 분야에서 학위를 딴 적은 없지만, 스무 살경에 베를린

으로 건너가 여러 건축 회사에서 견습공으로 일했다. 이 중 한 곳은 목구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였다. 1908년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의 사무실에 들어간 후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나 르 코르뷔지에 같은 사람들과 일했다. 그는 1912년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고, 이후 10년에 걸쳐 자신만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굳혀갔으며, 이것은 훗날 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고층 빌딩 디자인을 통해 처음으로 유리로 만들어진 외벽을 활용해 투명성과 반사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1922년에 그로피우스나 그 외 몇 사람과 함께 표현주의 운동인 노뎀버그그룹(Novembergruppe, 1918년 바이마르 혁명이 일어났던 달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명칭)의 회원이 되었다. 노뎀버그그룹 그룹은 스스로를 '급진적 건축가 단체'로 규정했다. 여기서 급진적이란 말의 의미는 전통적인 표현 형태를 거부하고 새로운 표현 수단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Mies van der Rohe



1 오카노야마(Okanoyama) 그래픽 아트 미술관, 1982~1984년. 일본 효고현 니시와키(Nishiwaki). 2 일본 예술·기술 센터, 1990~1994년. 폴란드 크라코프. 3 시청사, 1975~1978년. 일본 카미오카(Kamioka). 4 우피치 미술관의 새로운 출입구 모델, 1996년.

미스 반 데어 로에는 1923년에 사무소 건물을 설계하면서 이 원리를 적용하려 했다. 그 사무소 건물은 주변 경관을 한눈에 끌어들이는 철근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들어진 단순한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원리가 좀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구벤(Guben)에 지어진 볼프 주택(Wolf House,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다)이다. 보다 혁신적인 접근은 칼 리프크네히트(Karl Liebknecht)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를 위한 베를린 마뉴먼트(마찬가지로 허물어지고 없다)에서 이뤄졌다.

이 시기에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이젠호프(Weissenhof) 주거단지 건설을 지휘했다. 르 코르뷔지에를 포함한 많은 건축가들이 이 주거단지 건설에 참여했다. 몇 년 간의 활동 중에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이룬 최고의 성과는 1929년에 열린 바르셀로나 국제 박람회의 독일관이었

다. 바우하우스(Bauhaus)를 떠난 그로피우스의 요청에 따라 미스 반 데어 로에는 1930년부터 나치 정권의 압력으로 강제로 문을 닫게 된 1932년까지 이 학교의 세 번째 교장을 역임했다.

그는 1938년에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훗날 일리노이 주 공과대학(IIT)으로 알려진 시카고의 아머(Armour) 공과대학에서 건축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외부와 내부 사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들에서 완성도 높은 결실을 맺으며 이 학교 안에 크라운홀(Crown Hall)을 설계했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베를린 미술관 신관 같은 수평적 구조의 건물과 고층 건물 같은 수직적 건물에 주력했다. 전자의 경우에 그는 유동적 구조를 가진 공간을 실현하려 노력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고층 빌딩 자체가 빛나면서 반사하는 프리즘이 되도록 애써 투명성과 반사 효과를 살렸다. ㉞